

“그리움 큰 명절, 함께 하겠습니다” 박상우 장관, 설 명절 앞두고 유가족 만나 위로와 지원 약속

- 28일 유가족 면담 갖고 전담조직·특별법 기반으로 “유가족 뜻 최우선 지원”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명절을 하루 앞둔 1월 28일 오후 LH광주 전남지역본부에서 12.29 여객기사고 유가족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였다.
 - 박 장관은 희생자를 기리면서, 정부의 특별법 제정 계획 발표(1.13) 및 유가족 지원 전담조직 출범(1.20)을 계기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 - 이번 면담이 이뤄진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광주전남본부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유가족 협의회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.
- 박 장관은 유가족 대표와의 면담에서 “항상 함께 맞이하던 명절이 더욱 그리운 시간으로 느껴질 것”이라면서,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부를 대표하여 권한대행 명의의 설 명절 위로품과 위로의 말씀을 전달했다.
- 박 장관은 면담 중 “내일(1.29)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분들이 합동으로 설 차례를 지낼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”며, “정부도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희생자분들을 기리겠다”고 말했다.
 - 또한, 1월 20일 출범한 유가족 지원 전담조직의 활동을 언급하며, “정부는 전담조직과 곧 제정될 특별법을 기반으로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약속했다.

- 이번 면담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총괄과	책임자	과 장 김완국 (044-201-5452)
		담당자	서기관 박선용 (044-201-5453)